

서현길 삼흥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춘천 건설업체인 삼흥의 서현길(사진) 대표이사가 오는 20일 서울 논현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7 건설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서현길 대표는 33년간 업계에 종사하면서 각종 시설공사에 특허공법 반영과 현장의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및 논문발표, 규제개혁 등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신관호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 적용 대환영”

“전북지역 업체들의 숙원이었던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최근 마련돼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정대영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고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약 6500억원이 투자된 새만금방조제(1991년 기공식)에 전북 건설업체는 단 1원 어치 공사도 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발주되는 공사도 대기업 위주로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해 전북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미미해 정부 국책사업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의 애로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업체들은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새만금특별법에 지역기업 우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새만금특별법 제53조 및 시행령 34조)가 있지만, 새만금사업 관련기관에는 우대기준이 없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전북을 ‘환황해 경제권 중심시’로 키우겠다고 밝히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후 2개월여 만에 새만금개발청이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여기에는 PQ 심사 통과기준을 90점~95점으로 올리고, 신인도 점수를 현행 +5점~-10점에서 0점~-10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회장은 “이 우대방안을 적용하면 지역업체가 평균 약 2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전북도민과 정치권, 전북도청의 적극적인 협조



**지역사 평균 25% 지분 확보
지역경제 발전 큰 보탬 될 것**

**건설법에 규정한 건설사가
소규모 건축공사 시공토록
관계규정 개정도 서둘러야**

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한 일등공신이다. 그는 국내 10대 대형건설사 본사를 직접 찾아 지역건설업의 어려움과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다.

정 회장은 현재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 내·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 전북권 관광 효과 극대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필요성과 당위성이 확보됐다”면서 “새만금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2조8882억원이 투입되는 무주~대구(86.1km)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흐지

부지한 상태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최근 진행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대선공약 반영을 건의한 결과 19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됐다”면서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경제·교통·물류 중심축 연결과 두 지역의 화합과 통합 발전이 기대되는 무주~대구 고속도로를 선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건설정책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소건설업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소규모 건축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소규모 공사는 건축주의 직영시공이 탈세, 탈법 등의 목적으로 편법 운용되고 있어 부실공사로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돼 건설산업을 부실산업의 이미지로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85㎡ 이상은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올해 초 발의됐는데 아직 계류 중에 있다.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끝으로 “건협 전북도회는 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과 행복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건설산업으로서,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랑으로 미래건설’을 내걸고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고 장학사업을 통해 건설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3년 세계 잼버리 새만금대회 유치와 관련해 국제 청소년 진흥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함으로써 건협 전북도회가 세계의 청소년과 함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건설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